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의 전경을 환한 미소속에 바라보시며 지난해보다 더 멋있어진 것 같다고, 모든 생산 공정을 현대적으로 꾸린 결과 세계적 수준의 기계제품들을 짧은 기간에 훌륭히 개발생산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방대한 개건공사가 비록 어려웠지만 마음먹고 달라붙어 꾸려놓기를 정말 잘했다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의 곳곳마다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체취가 뜨겁게 어리여있다고 하시면서 공장로동계급은 위대한 수령님들

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어리여있는 일터, 우리 나라 기계제작공업의 맏아들공장, 중추공장, 핵심공장에서 일한다는 한없는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생산정상화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가공, 조립을 비롯한 여러 공정들을 돌아보시면서 생산정형과 기계제품의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언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을 21세기 산업발전의 추세에 맞게 현대화한 결과 공장의 생산 및 관리운영사업에서 지난 시기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전면이 일어났다고 말씀하시였다.

공장의 과학화, 정보화, 자동화, 무인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고 유연생산체계가 확립됨으로써 로력을 극력 절약하면서도 생산주기를 단축하고 생산량을 늘리었을 뿐만 아니라 질제고사업에서 자랑할 만한 성과가 이룩되었다고 하시였다.



공장에서 계렬생산하고 있는 기계제품들의 성능이 지난 시기에 비해 훨씬 좋아졌다고 하시면서 질적지표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제품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다고 못내 기뻐하시였다.

특히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에서 해당 단위와 합심하여 새 기계제품들을 개발 제작하였는데 나라의 기계제작공업발전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고 말씀하시였다.

우리의 머리로 설계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기계제품이어서 볼수록 소중하고 귀중한 재부처럼 느껴진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우리식의 현대적인 기계제품들을 만들어내는 사업은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궁전과도 같은 작업장들에서 울리는 생산증산의 동음을 들으니 기분이 좋다고 하시면서 완전히 국산화된 세계적 수준의 기계제품들을 개발생산하고 있는 공장의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 로동계급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이 맡고 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 수 있게 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울데 대한 문제, 현대화된 검측공정을 더 잘 꾸려놓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종업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부단히 높이며 CNC설비들을 다루는 모든 기대공들이 컴퓨터에 정통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릴데 대한 문제 등 공장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날 공장의 종합편의시설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지난해 종합편의시설을 돌아보지 못했는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보자고 하시면서 체육장, 수영장, 식사실, 목욕실, 미용실을 비롯한 종합편의시설의 여러 곳에 들리시여 운직접 세워주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종합편의시설이 정말 훌륭하다고, 이런 시설은 로동계급의 세상인 우리 나라에서만 일떠설 수 있다고 하시면서 종합편의시설의 일군들과 봉사자들이 봉사와 관리운영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함으로써 당의 사랑이 로동계급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종업원들과 가족들이 도시부럽지 않은 문화생활조건을 마련해준 당의 은덕이 고마워 눈시울을 적시고 있다는 일군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모두 좋아한다니 자신에서도 정말 기쁘다고, 로동계급에게 더 좋은 생활조건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에 계속 큰 힘을 넣

어 그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마음껏 누리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공장을 돌아보니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결정판철을 위해 떨쳐나선 공장로동계급의 열의가 대단히 높다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정신력을 더욱 분발시켜 총정의 200일 전투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의 로동계급이 만리마를 탄 기세로 힘차게 내달려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절실히 요구하는 최첨단기계제품 생산에서 일대 비약을 일으켜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 새로 개발제작한 현대적인 기계설비들을 계렬생산에 들어갈데 대한 지시와 앞으로 수행해야 할 전투적 과업을 주시고 그를 위한 대책들을 영실태를 세심히 알아보시였다.



백두산 천 출 위인들을 대를 이어 모시여

1945년 8월 15일, 이날 우리 민족은 재생의 봄을 맞이하였다.

《김일성장군 만세!》

《조국해방 만세!》

이 땅의 방방곡곡 그 어디서나 해방의 기쁨안고 달리는 인민의 물결이 끝없이 굽이쳐흘렀고 환호의 메아리는 온 삼천리강토를 진동하였다.

역사철사로 결박되었던 민족의 넓은 마침내 자유와 존엄의 새 역사를 맞이한 것이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겨 장장 40여년, 그 나날 나라의 독립을 위해 우리 민족이 흘린 피는 그 얼마였던가.

빼앗긴 국권을 되찾으려 남녀로소 모두가 눈물겨운 국채보상운동도 벌렸고 민족적의 분을 안고 의병투쟁도 벌렸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땅에 독립의 새 날을 안아오지 못하였다.

망국노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며 길가의 조약돌처럼, 마가을의 락엽처럼 이리저리 짓밟히며 떠돌던 그때 우리 겨레에게 재생의 빛을 안아온 위대한 태양이 솟아올랐으니 그이는 바로 우리 민족이 낳은 불세출의 위인이시며 백두산의 장군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이시였다.

민족의 아들로 탄생하시여 겨레가 당하는 피로움과 슬픔을 빼내 새기신 주석께서 어린 시절 아버님이 쓰시던 벼루에 먹을 갈아 《조선독립》이라는 글을 쓰실 때 이 나라의 운명은 그이의 어깨우에 무겁게 실리였다.

조국 해방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빛발로 조선이 나아갈 진로를 밝히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명도하심으로써 이루어진 민족사적 위업이었다.

옳바른 지도사상과 리론, 방법을 가지지 못한 투쟁은 라침판이 없는 배와 같이 방황하기 마련이다.

형형색색의 주의주장의 란무로 하여 독립운동이 나아갈 길을 잡지 못하고 암중모색하고 있던 그때 민족의 자주권은 오직 그 민족자체의 주체적인 노력과 불굴의 투쟁에 의해서

만 보존하고
쟁취할 수 있
다는 것을 깊
이 통찰하신
주석께서는
겨레의 힘을
하나로 둑어
세워 민족해
방투쟁을 벌
리기 위한
로선을 내놓
으시였고 조
국해방의 유
일한 길은
무장투쟁을
벌리는데 있
다는 선군사
상을 밝히시
였다.

『무장은
우리의 생명
이다! 무장
에는 무장으
로!』라는
구호를 제
시하시고 항
일의 종대를

높이 추켜드신 그때로부터 전설적 명장이신 김일성장군님의 탁월한 군사전법과 지략에 의해 수많은 대소 전투마다에서 일제의 《황군신화》는 여지없이 깨여져나갔다.

일본군대가 항일유격대의 매복에 걸려 무리죽음을 당하고

너무도 혼쭐이 나 무기와 장구류까지 내버린 채 도망을 쳤다는 장백현 대덕수전투, 신비한 망원전술에 걸려 저들끼리 맞붙어 죽일내기 하다 수백 명의 유격대가 어디로 갔는가, 참으로 귀신이 꼭 할 노릇이라고 하

면서 비명을 지른 소덕수전투,

유인기만전술과 숙영지야간습

격전으로 적들을 혼비백산케

한 곰의 끌어귀전투…

그이의 경활무쌍한 전법에 걸려 삼대 쓰러지듯 놓아나기만 한 일제는 너무도 기겁하여 《김대장 빨찌산》이라

는 말만 들어도 공포에 떨었고 억눌린 조선민족은 해방의 희망과 기쁨에 넘쳐 백두산의 축지법이야기로 밤이 새는 줄 몰랐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는 당시 우리 겨레가 그이를 얼마나 열렬히 경모하고 우러러 따랐는

가를 보여주는 이런 이야기도 있다.

…안덕훈을 만나던 당시는 장백현일대에서 우리에 대한 신화같은 전설들이 파다하게 퍼져 김일성이 출방울을 만지면 정말로 총알이 된다고 생각 하던 때였다.

안덕훈은 그런 기담들에 류 다른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 집 문력을 넘어서기 바쁘게 대답하기가 매우 난처한 질문을 연거펴 들이대였다. 다행히도 주인이 아래방에 있는 김평을 대장으로 알고 그하고

만 상대하였기 때문에 나는 거

기에 끼여들지 않아도 되었다.

그들의 대화가 아주 해학적이였다.

《장군은 3일 천기만이 아니라 월씬 더 면 앞날까지 환히 내다본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안덕훈이 김평에게 던진 첫 질문이였다.

《사실이구 말구요.》

김평은 시치미를 떼고 태연하게 대답하였다.

안덕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거리였다. 그리고는 또다시 새로운 질문을 들이댔다.

그 이름도 빛나는 위인의

으시였다.

그것은 일제가 밀어놓고 준 공검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갑무경비도로》를 따라 대낮에 행군하여 무산쪽으로 단숨에 일행천리하는 것이였다.

지휘관들은 그만 어리둥절해하였다. 백주에 보통 달구지길 도 아니고 적들이 조선인민혁명군을 《토벌》한다고 하며 특별히 공사를 한 경비도로로

이 특설한 경비도로로 백주에 대오를 지어 행군하리라고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 점에 백일대로 행군의 확실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적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대담하게 강행하는 여기에 이 행군의 가능성을 약속하는 전술적 담보가 있다.

실지 그러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영솔하에 대

부대는 일제가 말

끔히 비질까지 한

《갑무경비도로》

를 따라 일사천리로 무산지구에 진출하였으며 일제에게 만회할 수 없는 심대한 정치군사적 타격을 주고 국내 진공작전을 성과적으로 치르었던 것이다.

소탕하에서의 일행천리 전술이 상대의 군사적 약점을 이용한 것이었다면 《갑무경비도로》에서의 일행천리 전술은 적들의 심리적 취약성을 강화하고 단행한 대담한 행군 전술이였다.

때문에 일제는 조선인민혁명군이 한낮에 《갑무경비도로 개통식》을 하였다고 비명을 질렀다.

본사기자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에서 연설하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

존함은 백두산과 더불어 우리 겨레의 존엄을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통일시대를 열어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의해 련연히 이어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드시고 공화국을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통일을 방해하는 외세의 책동을 선군의 위력으로 걸음마다 짓부시며 겨레의 자주통일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다.

해방의 그해 11월 5일부 《해방일보》는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해방을 이룩하신 김일성주석의 거룩한 민족사적 업적에 대하여 이렇게

온 선군의 종대로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켜주시고 우리 민족끼리의 자주통일시대를 열어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시여 부강조국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펼치고 조국통일위업을 확신성있게 추동해나가고 있다.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

를 비롯한 만사에 정통하신

뛰어난 자질과 령도실력, 고

매한 덕망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절세위인들의

선군애국위업은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 한치의 드림도

없이 빛나게 계승되고 있다.

그이의 비범한 정치경륜과 활동에 대해 《KBS》, 《진보네트워크》를 비롯한 남조선언론들은 《김정은령도자》를 계승, 《김정은령도자는 앞으로 선대수령들의 선군정치를 변함없이 계승발전시키면서 무적의 군력을 의거하여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남북통일을 실현하며 강성대국이라는 사회발전을 이룩할 전망이다.》라고 전했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여 민족이 일구월심 바라는 조국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 민족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송고한 통일에 국의 뜻과 유훈을 받드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 따라 거족적인 통일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감으로써 온 겨레가 소원하는 자주적이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을 반드시 안아오고야말 것이다.

본사기자 김강철



림기응변의 지략으로

우리 민족의 조국해방사업 실현은 비범한 군사적 예지와 신묘한 지략, 탁월한 영군술을 지니신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안아오신 항일대전의 혁사적 승리이다.

《갑무경비도로 개통식》에 대한 전설 같은 이야기도 어버이수령님의 독창적인 유격전술과 영활한 전법을 보여주는 수많은 일화들 중의 하나이다.

1939년 봄 조선인민혁명군 대부대가 국내의 무산지구로 진출하는 과정에 청봉, 건창을 거쳐 배개봉에 이르렀을 때였다. 일제의 대병력이 수색작전을 펴고 포위환을 조이고 있었다.

국내 진공작전을 위해 무산지구로 빠져나가자면 어떻게 하여야 하겠는가.

조성된 정황 하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지휘관들로부터 의견을 들으시였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고 일장일단이 있는 것이여서 견해의 일치를 보지 못하였다.

그때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자신께서 구상하신 안을 내놓

는 그들은 비행기로 무산지구에 진출하는 것을 예상하고는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 점에 백일대로 행군의 확실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적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대담하게 강행하는 여기에 이 행군의 가능성을 약속하는 전술적 담보가 있다.

실지 그러하였다.

어버이수령님의 영솔하에 대

부대는 일제가 말

끔히 비질까지 한

《갑무경비도로》

를 따라 일사천리로 무산지구에 진출하였으며 일제에게 만회할 수 없는 심대한 정치군사적 타격을 주고 국내 진공작전을 성과적으로 치르었던 것이다.

소탕하에서의 일행천리 전술이 상대의 군사적 약점을 이용한 것이었다면 《갑무경비도로》에서의 일행천리 전술은 적들의 심리적 취약성을 강화하고 단행한 대담한 행군 전술이였다.

때문에 일제는 조선인민혁명군이 한낮에 《갑무경비도로 개통식》을 하였다고 비명을 질렀다.

본사기자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 더 높이 부르며

8.15를 맞으며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가 더욱 장중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

이 노래를 들을수록 치욕의 망국사에 종지부를 찍고 남녀로소모두가 떨쳐나와 해방만세를 부르던 71년전의 그 감격과 환희가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가슴뜨겁게 안겨와 숭엄해짐을 금할수 없다.

민족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백질 불굴의 정신으로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힘있게 떨치며 승승장구의 궤도를 따라 전진해온 공화국의 궁지 높은 혁사를 새겨주는 노래이다.

오늘은 사회주의 강국건설에로 천만군민을 불러일으키는 정신적 원동력으로, 시대의 추동력으로 되고있는 이 노래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자주통일의 새봄을 부르는 투쟁의 진군가로 더 높이 울려퍼지도록 하여주시였다.

우리가 조국통일의 혁신적대업을 이루하자면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 맥박치는 사상과 정신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8월의 폭양보다 더 뜨거운 통일열기로 끓어번지는 삼천리강토에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와 더불어 절세위인의 숭고한 통일의지의 세계가 높뛰고 있다.

* * *

소나무는 반만년민족사와 더불어 우리 겨레의 삶속에 깊이 뿌리내린 정깊은 나무이다.

눈속에 묻혀도 푸름을 잊지 않고 총암절벽에도 얹세게 뿌리를 내리는 소나무는 꺾일지언정 굽히지 않는 우리 민족의 지조와 기개의 상징으로 친미되어왔다.

불 요 불 굴 의 혁 명 투 사
김형직선생님께서는 바로 이 소나무에 몸이 찢겨 가루되여도 나라의 독립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굽함없이 싸워나가시려는 정신을 담아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를 지으시였다.

남산의 저 푸른 소나무가
눈서리에 파묻혀서
천신만고 피롭받다가
양춘을 다시 만나 소생 할줄을
동무야 알겠느냐

당시로 말하면 《왜멸복국》을 부르짖으며 창과 화승대를 들고 왜적과 대항도 해보았고 봉기의 함성도 터쳐 보았지만 더욱 비참해지는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두고 겨레누구나 가슴을 쥐어뜯고 있던 때였다.

지사, 의사라는 사람들이 독립을 부르짖으며 동분서주하였지만 큰 나라들의 힘을 빌어보려고 눈물겨운 청원운동을 벌리는것이 고작이였다.

울밀의 봉선화에, 구슬픈 두견새의 울음소리에 너무도 애처롭고 가엾은 자신들의 운명을 달래며 불행 속에 몸부림치던 그때 민족의 위대한 힘을 선언하는 혁사의 타종으로 자주독립의 새 봄을 부르며 힘차게 울려펴진 노래가 《남산의 푸른 소나무》였다.

온 심장을 애국의 펴로 끓게 하는 그 거룩한 세계에 매혹되어 호를 《송암》으로 지어부른 오동진을 비롯한 수많은 애국자들이 김형직선생님을 따라 독립성전에 떨쳐나섰다.

눈보라에 두루마기자락을 날리시며 깊은 한생을 불같이 태워 혁사의 새벽길을 밟히신 김형직선생님의 고귀한 생애에 대하여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회고록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아버지는 한생을 나라를 위해 살을 저미고 뼈를 깎다가 돌아갔다. 그들되는 악형과 동상으로 몸에 치명상을 입었을 때에도 굴함을 모르고 민중을 찾아가고 동지들을 찾아가던 아버지였다. 힘이 진하면 지팡이를 짚고 배가 고프면 생눈을 움켜 삼키면서도 뒤를 돌아보거나 주춤거리지 않고 곧장 앞으로만 걸어 가던 아버지였다.》

남산의 푸른 소나무와 더불어 더욱 숭엄히 어려오는 김형직선생님의 불굴의 기상은 우리 수령님들로 하여금

온 넋을 혁명열, 투쟁열로 뜨겁게 불태우며 조국과 인민을 이끌고 시대와 혁사를 전진시켜오실 수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

그러서 이 노래를 부르면 위대한 수령님께서 헤쳐오신 항일의 눈보라 만리, 불바다만리가 허폭처럼 펼쳐지는 듯싶고 붉은기의 퍼덕임소리, 진군의 나팔소리가 귀전에 메아리쳐온다. 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백질불굴의 기상을 안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회주의조국을 지켜 넘고넘으신 오성산과 철령의 높고 험한 령길,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며 장군님 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간 불굴의 군상들이 송엄히 어려온다.

우리는 혁명의 길이 아무리 멀고 험난하다고 하여도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 담겨져있는 사상과 정신을 심장에 새기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고 하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부르는 투쟁의 진군가로 끝없이 울려펴지도록 하여주신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새기며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조국통일의 혁신적대업을 이루하기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더 높이 불러야 할 투쟁의 노래, 승리의 노래임을 심장깊이 받아안게 된다.

돌이켜보면 나라가 분렬되어 인간의 옹근 한생과 맞먹는 71년 세월이 훌렸다.

해방의 환희로 끓어번지던 강토를 두동강내며 열기설기 쇠사슬이 뻗어나가고 38° 선이라는 표말들이 민족의 등허리에 아프게 내려꽂힐 때 분별의 비극이 이토록 오랜 세월 지속될 줄은 누구도 몰랐다.

다가서다가는 멈춰서고 오다가는 또다시 멀어지는 통일을 두고 절통함에 가슴친적 그 얼마이며 꿈과 같이 헤여진 부모형제를 부르며 눈도 못 감고 운명한 이들은 또 그 얼마인가.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 이 노래를 부르노라면 민족분렬의 고통 속에 몸부림쳐온 우리 민족의 70여년사가 눈서리에 파묻혀서 천신만고 피롭받는 소나무의 형상처럼 안겨온다.

그러면서도 소나무의 형상이 굳세게, 개인하게 어려오는 것은 그 모습에 눈서리에 파묻혔어도 스러지지 않고 봄을 그리며 꽃꽃이 기개를 과시하는 불굴의 기상이 비껴있기 때문이다.

하기에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서 장구한 세월 분별의 아픔 속에 몸부림치면서도 결단코 신심을 잃지 않고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여온 우리 민족의 혁사를 더 깊이 새겨안게 된다.

겨울의 눈서리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소나무는 푸르고 억센 기상 변치 않고 봄을 맞이한다.

우리 비전향장기수들이 남조선에서 30~40여년간의 옥중고초를 겪으면서도 신념을 굽히지 않고 투쟁하여온 것은 조국통일에 대한 확신이 깊이 뿌리내려있었기 때문이다.

매일 매 시각이 고통의 연속이었다.

교령리들은 짐승도 낮을 뿐만 별의 고문수법들을 다 고안해내며 우리에게 전향을 강요했다.

물고문, 고추가루고문, 전기고문…

그중에서도 고문중의 상고문이라 이르던 《대포수정》을 당하면 너무도 참기 어려워 차라리 죽고싶은 생각까지 갈마들 때도 있었다.

한손에 수갑을 채워 어깨뒤로 넘기고 다른 한손을 등뒤로 가져가 힘껏 올려 당긴채 수갑을 채운 상태로 고통을 주는 고문이였는데 왜정때 일제 간수들도 이러한 고문은 30분이상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교령리들은 우리들의 기를 꺾어놓는다고 육육 벼르면서 5시간 이상이나 《대포수정》 고문을 들이대군하였다.

겨울이면 혹독한 추위가 몸을 사정없이 얼구고 여름은 여름대로 감

비전향장기수 리경찬

방안이 한중탕이 되여 온몸이 물주 머니로 되여버리군 한 그 지옥같은 먹방살이.

하루에도 삶과 죽음의 문턱을 몇차례씩 넘나들어야 하는 그 분분초조가 모여 세월을 이루고 어느덧 30살 한창나이에 령어의 몸이 되었던 나의 머리에도 눈서리와도 같은 백발이 내려앉았다.

원쑤들은 헛된 미련에 사로잡혀 인생을 썩일 필요가 있는가고 희유하였지만 오히려 우리는 그때마다 통일의 그날 혁사의 심판대에 오르지 않으려거든 역적질을 그만두라고 단죄하군 하였다.

그때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 준 신념의 찬가가 바로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였다.

구절구절에 높뛰는 숭고한 의미를 새길수록 내가 태여난 고향 장풍땅의 소나무숲이 어려왔고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새롭게 받아안은 삶의 환희를 그 나무와 더불어 미숙한 그림에 담아보며 너처럼 살리라, 꽃꽃하게 강직하게라는 자작시를 지어 부르던 때의 일들이 새삼스럽게 회억되군 하였다.

기어이 승리자가 되여 다시 그 품에 안길 그날을 위해 서리낀 철창속에 억사철사로 수족을 묶이우고 모진 악형속에서 뼈가 부서지고 살점이 얼어터지더라도 태양을 빙어들여 조국통일의 한길에서 굴함없으리라.

이것은 우리 비전향장기수들 모두의 지향이고 의지였다.

나는 가끔 이런 생각에 잠기곤 한다.

그때 우리의 가슴속에 조국통일에 대한 신념이 성벽처럼 굳건히 세워져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것인가하고, 그러면 정신적으로 동요하였을 것이고 기나긴 옥살이와 고문을 이겨내지 못하였을것이다.

신념은 죽음도 맞받아 뿐고나가고 미래를 앞당기기 위해 굴함없이 투쟁해나갈수 있게 하는 정신력의 원천이다.

오늘은 비록 눈서리에 파묻혀 피를 받지만 태양이 있어 양춘은 반드시 온다고, 조국통일의 길에 험로역경은 많아도 해방의 그날처럼 통일은 반드시 온다고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눈서리를 멀쳐버리고 일어서는 소나무의 억센 기상으로 웨치고있다.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사적대업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하는가 하는 심오한 철리도 깊이 새겨주고있다.

광명한 미래는 혁신적인 투쟁을 요구한다.

《몸이 찢겨 가루되어여도》, 노래의 이 구절에 높뛰는 백질불굴의 정신을 새길때면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수행할 비장한 결심을 품고 모진 고난과 시련도 뿐고나가야 한다고 하시며 통일애국의 길로 겨레를 손잡아 이끄신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이 숭엄히 어려온다.

진정 우리 수령님들의 한생은 나라의 통일을 위해 온갖 고생과 심혈을 다 바쳐오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이다.

지금도 나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혁신적인 판문점시찰소식을 접하고 뜨겁게 눈물 쏟던 일을 잊을수 없다.

지나가는 바람소리에도 반사적으로 격발기에 긴장이 서린다는 판문점, 지구상에서 가장 첨예한 열점지역.

바로 그곳에 나가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으로 남기신 친필존함을 새긴 통일친필비를 오래도록 바라보시며 비에 새겨진 수령님의 친필은 불과 아홉글자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에 담겨진 뜻은 수천수만자의 비문으로도 대신할수 없는 거룩하고 위대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는 이야기는 나의 심금을 쿵쿵 울려주었다.

중증첩첩한 난관을 뿐고 통일의 혐로를 개척해오신 우리 수령님이

시였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해인 1994년의 그 날에 도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바야흐로 도래 할 북남최고위급회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시였으며 건강을 념려하여 회담날자를 8월경으로 정하였으면 한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자신의 건강은 일없다고, 7월초도 좋고 아무때도 좋으며 빠를면 빠를 좋다고 하시였다.

그토록 조국통일에 대한 열의로 가슴끓이시던 우리 수령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막친필을 조국통일과 관련한 문건에 남기시고 집무실에서 순직하였으니 판문점의 통일친필비는 오늘도 우리 겨레에게 조국통일을 위해 어떻게 살며 투쟁해야 하는가를 짐작이 새겨주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해방 50돐이 되는 1995년 8월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시였다.

만경대 혁명일가가 대대로 바란 것은 분렬된 조국이 아니라 통일독립된 하나의 조국이였다. 금수강산 삼천리에 양춘이 찾아올제 독립만세를 불러달라던 김형직선생님의 절절한 부탁과 생전에 조국통일때문에 어느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하시고 온갖 고생과 심혈을 다 바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반드시 실현하여야 한다.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사상과 정신으로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려는 우리 장군님의 불굴의 통일신념, 확고한 통일의지는 불후의 통일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조국통일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자》, 《온민족이 대단결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자》에도 맥박치고 미끄러운 얼음강관우에서 차가 속도를 늦추는 것을 보시고 차속도가 늦으면 그만 큼 우리 혁명이 늦어지고 조국통일이 늦어진다고 하시며 통일의 봄우뢰를 삼천리가 진동하도록 울려주실 그날을 불러 쉼없이 출기차게 이어가신 선군령도의 갈피갈피마다에도 높뛰고있다.

내가 백두산위인들을 받들어 혁명적신념과 의리를 변함없이 지켜갈 맹세를 그림에 담으려고 결심한것은 그때부터였다.

그럼은 그리는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것이란 말이 있다.

처음에는 바다에, 다음에는 종이에 몇번이고 반복을 되풀이하며 끝내 완성한 소나무를 배경으로 한 《백두산호랑이》그림과 푸르고 억센 기상으로 웨치고있다.

《송학도》에는 백두산위인들을 따르는 길에 혁명의 승리가 있고 민족의 밝은 앞날이 있다는 이름없는 전사의 인생철학이 비껴있었다.

우리 비전향장기수들만이 아닌 온 겨레가 찬란한 태양이 삼천리를 비치여 통일의 아침은 반드시 밝아온다는 신념으로 온갖 불태우며 조국통일을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하였다.

분렬된 강토에서 살고있는 우리 겨레에게 있어서 조국통일은 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풀에 달려와 안기고 구적인 인생전환을 한것처럼 오늘은 온 겨레가 《김정은원수님은 통일이십니다.》라고 목에 웨치며 경애하는 원수님께 운명과 미래를 전적으로 의탁하고있다.

진정 오늘의 시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담대한 기상과 배짱, 무비의 담력을 의탁해 천가지 화가 날아나고 통일의 밝은 전망이 이 땅우에 펼쳐지는 김정은통일시대이다.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세계가 우러르는 존엄높고 번영하는 통일강국이 일떠설 그날은 멀지 않았다고, 북파 남 해외의 온 겨레가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새봄을 마중가자며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힘차게 울려펴지고있다.

나는 이 글을 마감하며 심장의 결정을 터쳐 호소한다.

겨레여! 조국통일에 대한 신념을 굳게 간직하고 몸이 찢겨 가루되여도 기어이 통일의 양춘을 불러올 애국의 열정으로 온몸을 불태우자.

삼천리금수강산에 통일의 새 아침이 밝아오는 그날 우리 뜨겁게 얼싸안고 동해가 끓고 산이 동하게 목청껏 통일만세를 높이 부르자.

나는 남녘의 차디찬 감방에서 소나무그림을 그려가며 혁명적지조와 통일의 신념을 지켜 투쟁하던 그때처럼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를 더 높이 부르며 경애하는 원

《민족자주는 조국통일3대헌장에 관통되어 있는 기본정신이며 통일운동의 생명선입니다.》 김정은

민족자주는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

북파 남 해외의 우리 겨레가 내외분열주의 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짓부시고 나라의 통일위업을 하루빨리 성취하자면 민족자주의 가치를 높이 들어야 한다.

민족자주는 조국통일 3대헌장에 관통되어 있는 기본정신이며 통일운동의 생명선이다.

자주성은 민족의 생명이며 자주성을 지키는 것은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근본담보이다.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민족의 운명을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 수 있으며 국제무대에서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할 수 있다. 민족의 자주성에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있고 민족적 궁지와 자부심이 있으며 민족의 불굴의 기상이 있다. 민족자주를 실현하지 않고서는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지킬 수 없고 나라와 민족의 번영도 더욱 해나갈 수 없다.

조국통일위업은 마땅히 우리 민족이 주인이 되여 이룩해야 할 자주위업이다.

조국통일문제 자체가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인 것 만큼 우리 겨레가 주인이 되여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자주적으로 이룩해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조선을 분렬시킨 외세가 결코 우리 민족에게 조국통일을 선사해줄 수 없다. 외세는 우리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여 강대해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는다. 이것은 민족분렬의 오랜 역사가 보여주는 뼈저린 교훈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을 달가워하지 않는 외세에게는 오히려 조선의 분렬을 통하여 어부지리를 얻으려는 흥심만이 있다.

우리 민족에게 분렬을 강요한 외세에 의존하여 통일을 이루어보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망상이고 예속의 올가미를 스스로 목에 거는 것이나 다름없는

어리석은 것이다.

현시기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을 바라지 않는 미국은 남조선과 그 주변에 최첨단 살인전쟁 장비들을 계속 끌어들이고 남조선 호전세력과 야합하여 대규모의 북침 전쟁연습소동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으면서 조선반도의 정세를 국도로 긴장시키고 있다. 그런가하면 저들의 수급줄개들을 대양전너에까지 불러들이며 중미사대의식, 동족적대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사대와 외세의 존을 체질화한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한미동맹관계 강화』를 부르짖으며 민족의 리익을 외세에게 송두리채 섬겨바치는 역적 짓도 서슴지 않고 있다. 또한 온 남조선땅을 미국의 핵전쟁전초기지, 핵전쟁발원지로 전락시키고 반공화국 『제재』와 압살소동의 돌격대로 발벗고 나서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조국해방 일흔한돌을 맞으며 공화국은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하는데 대한 공개편지를 남조선과 해외의 당국, 정당, 단체 및 개별인사들에게 보내었다.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개최하는데 대한 공화국의 제안은 바로 민족자주와 민족대단결의 기치높이 온 겨레가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자주통일의 새 역사를 파감히 개척해나가려는 숭고한 혐원, 장장 70여년에 걸친 분렬사에 종지부를 찍고 우리 민족의 존엄과 명예가 만방에 빛나는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려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로부터 출발한 것이다. 그런데 남조선보수당국은 공화국의 제안에 대해 『진정성이 없는 제안』이니, 『위장평화공세』니, 『오직 제재와 압박만이 필요하다.』느니 뭐니 하며 히스테리적대결광기를 부리던 끝에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마지막까지 가로막아나섰다.

남조선보수파당이 민족

내부문제, 통일문제를 외부에 들고다니며 청탁하는 놀음을 벌려대고 더우기는 미국의 지배주의적 요구에 따라 『싸드』를 남조선에 배치하기로 하여 온 겨레와 주변 나라들의 강력한 항의와 규탄,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역시 외세에 민족의 운명을 내맡기고 민족의 리익을 마구 팔아먹는 미국 배족행위가 아닐 수 없다.

해내외의 우리 겨레는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민족적 단합을 이룩하고 반통일세력의 온갖 책동을 짓부시며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기어이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고자 말것이다.

본사기자 최광혁

그들의 감격을 통일의 환희로



아주시였다.

아버지 이수령님께서 조국을 해방하심으로써 우리 민족은 식민지노예의 운명에서 구원되고 자기 운명의 참다운 주인이 되여 새 삶과 자주적 발전을 이루해나갈 수 있는 밝은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해방의 그날 온 삼천리 강토가 민족재생의 환희, 해방의 감격으로 세차게 끓어번졌다.

조국해방의 기쁨과 환희, 정녕 그것은 민족재생의 은인이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온 겨레의 다함없는 감사와 고마움의 분출이였고 그이의 령도밑에 민족발전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나가려는 우리 민족의 만만한 투지와 의욕의 분출이였다.

그때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된 새 세상에서 마음껏 자주적 삶과 창조적 생활을 향유할 꿈으로 부풀어있던 우리 겨레중 그 누구도 외세에 의해 나라가 두동강나 70여년 세월 민족분렬의 비극을 겪을 줄은 몰랐다.

미국은 삼천리 강토우에 제멋대로 38° 선을 그어 놓고 남조선에 더러운 군화발을 들이밀어 수천년간 하나의 강토에서 화목하게 살아온 우리 민족을 둘로 갈라놓은 분렬의 원흉이다.

조국의 분렬과 미국이 도발한 침략전쟁으로 하여 우리 겨레는 참혹한 재난도 겪었으며 수십년 세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고 있다.

민족자주는 조국통일 3대헌장에 관통되어 있는

본사기자 김철민

여러분들의 수고를 덜어드리고자 우리가 이번에 무수히 나도는 통일부의 별칭을 종합하여 하나로 만들었음을 알려 드리는 바입니다.

통일부에 무슨 별칭들이 그렇게도 많은지 우리는 언제나 혼란을 느껴왔습니다.

청와대에 짓눌려 그 존재감이 없다고 하여 『허수아비부』, 『꼭두각시부』, 『학바지부』, 『노복부』, 『밥통부』, 청와대 안방주인의 동족대결망동을 무작정 대변하고 변호한다고 하여 『대변부』, 『나팔부』,

『변호부』, 『방패부』, 『방탄부』…

이뿐이 아닙니다.

동족대결에는 일선에 나서서 『대결부』, 민족의 통일론의 앞장에 서 가로막아 『반통

나. 『방패부』…

이 토해내는 더러운 동

족대결망언들과 궤변들

을 따라가며 뒤거둠 잘

해준다고 요즘 항간에

는 『청소부』라고 부른

아가 문답을 진행하였

습니다.

물음: 통일부가 무슨 일을 하는 부서이며 앞으로 무슨 일들을 하겠

없을 것이다. 대통령의 말은 100%

옳은 것이며 우리는 앞으

로도 계속 그의 충실한 주구가 될 것이다.

우리는 통일부 장관의 대답에서 최종결론을 도출해냈습니다.

통일부는 앞으로 보

나 뒤로 보나 『동족대

결정책집행부』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통일부에 꼭

어울리는 말이고 항간

에 무수히 나도는 별칭

들의 공통점을 하나로 모은 명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성

『세』라고 헐뜯으면서 각계총단체들과 개별적인 사람들이 통일대회합을 위해 북측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건 것도 다름아닌 통일부이다.

양대가리 걸어놓고 개고기 판다니 결국 남조선통일부는 간판파는 정반대로 분렬과 대결만을 추구하는 범죄집단이다.

분명히 하건대 통일부가 지금처럼 반통일과 대결의 길로만 출발을 치다가는 시대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조선카톨릭교협회 중앙위원회 책임부원 리어금

만필 명칭이 바뀝니다

부), 전쟁의 불구름은 다지요. 두팔걷고 불러와 『전쟁부』, 동족이 아니라 외세만 믿고 따른다고 하여 『만나라부』, 제입으로 화만 불러온다 고 하여 『자멸부』… 헤아릴수 없는 명칭에 요즘에는 또 『청소부』라는 말까지 생겼습

이렇게 별칭이 많으니 여러분들이 간혹 쟁갈릴 때가 있었을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를 통해 여러분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통일부에 헤아릴수 있는 명칭도 꼭 어울리는 명칭을 고르기 위해 통일부 장관 홍용표를 찾

대답: 우리 통일부는 이름자그대로 『통일』을 위한 부서이며 그 『통일』은 철두철미 『흡수통일』이다. 북이 『핵포기』와 『변화』의 길을 걷지 않는 한 남북관계개선 이란 있을수 없으며 그 어떤 교류와 협력사업도

통일부 간판을 떼라

민족의 화해와 단합, 북남 세)라고 헐뜯으면서 각계총단체들과 개별적인 사람들이 통일대회합을 위해 북측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제동을 건 것도 다름아닌 통일부이다.

양대가리 걸어놓고 개고기 판다니 결국 남조선통일부는 간판파는 정반대로 분렬과 대결만을 추구하는 범죄집단이다.

분명히 하건대 통일부가 지금처럼 반통일과 대결의 길로만 출발을 치다가는 시대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조선카톨릭교협회 중앙위원회 책임부원 리어금

시목음

해방의 8.15를 통일의 8.15로

겨레여 그 빛발파라

김 윤식

앞길을 밝혀주는 빛발 없다면
인생의 먼길 갈수 없듯이
분별의 멍장구름 가시여
통일의 앞길 밝혀주는 눈부신 빛발
그 빛발이 우리 겨레에게 있어라

영광스러운 당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원수님 펼쳐주신 통일의 대강이여
오늘도 가슴설레이게 하는
5월의 열광 크나큰 격정은
겨레의 심장에 높뛰는 세찬 박동이다

눈앞이 환히 트이고
가슴이 넓어지는 그 경륜에
온넋이 끌리여 겨레가 터친 감격
하시는 말씀말씀 그 구절구절을
심장속에 뜨겁게 새겨안은 우리 겨레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참뜻
겨레의 가슴에 그이 거목으로 세워주셨고
통일의 동반자로 손잡고 열어갈

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기상으로

리 송일

8월은 해방의 감격 노래하는데
가슴친다, 분별의 절통함이
세월은 70년을 더 넘어섰는데
우리 겨레 언제까지 갈라져 살아야만 하는가

시련과 난관이 겹겹이 막아서도
기어이 조국을 통일하리라
산악같은 맹세 용솟음치는 가슴에
더 깊이 새겨진다, 김정은원수님의 말씀

—조국통일의 혁사적대업을 이룩하자면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 맥박치는
사상과 정신을 신념으로 간직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가야 한다!

듣는가, 겨레여
절세위인의 불타는 통일의지
우리 심장에 새기자
통일의 신념으로

나라의 독립을 못할바에야
살아서 무엇하리
몸이 찢겨 가루되어도...
그 불굴의 정신
삼천리에 해방을 안아왔고

대를 이어 싸워서도

8월의 쑥심은 말한다

김 송림

바로 예가 아닌가
1948년 5월 수령님 모시고
남녘의 각계 인사를 모여 앉았던 혁사의 땅
생각깊은 결음결음
8월의 이 쑥심에 자욱자욱 옮기노라

해방조국에 질어가던 분별의 비운
단합된 민족의 힘으로 가셔버리자
수령님의 뜻 받들어 그 리념에 넋이 끌려
그날의 남녘인사들
애국의 맹세로 가슴불태웠던 이곳

아, 민족대단결이자 조국통일이여서
그날처럼 뜻깊은 8.15에
통일대회 학렬치고 우리 함께 모여앉자고
우리 얼마나 뜨겁게 호소하였던가

만나면 통일의 열기로 가슴풀이며
진정을 나누고 심금 터놓을수 있는
우리는 한파줄을 이룬 하나의 겨레
정전과 신양 주의주장을 뛰여넘어
민족의 숙원 통일을 바라는 마음으로
뜻과 맘 합칠수 있거니

그 누가 산천은 말이 없다 했는가
애국애족의 마음 합쳐지는것 그리도 두려워
칼을 물고 날뛴 분별주의자들

기어이 우리 만나자

김 영일

물노니, 온 겨레가 바라는
통일의 대회 학을 가로막는 이것이
남녘의 위정자들 떠드는 《진정성》이나
민족의 소망을 유린하는 그것이
침마르게 떠들어대는 《신뢰》이나

겨레의 혁원 혁사의 부름을 외면한
가증스런 반통일 무리들
이제는 누구나 다 안다
누가 진정으로 통일을 원하는가를
누가 기를 쓰고 분별을 원하는가를

민족을 등진 역적들의 만고죄악
민족의 준엄한 심판 면치 못하리니
설사 8월에 우리 못 만나도
통일대회 학장 기어이 학렬치고
우리 뜨겁게 열싸안으리라

그날을 그려 그날을 믿어
겨레의 가슴은 세차게 높뀐다
반통일의 무리 쓸어버리고
겨레여 우리는 만나야 한다
통일대회 학장에서 기어이 우리 만나자

통일의 8.15를 마중가자

김 태룡

후세들도 해마다 분별의 나이 아프게 먹나니

겨레여, 물어보자
그 어느 민족보다 피가 뜨겁지 못해
끓어진 혈액을 이을 힘이 없어
우리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것인가
통일만세 터치지 못하는것인가

일떠서라 겨레여
노예의 쇠사슬 끊어내치고
해방의 노래 부른 8.15처럼
분별의 장벽 허물어버리고
통일의 노래 부를 8.15를 마중가자

오, 백두에서 한나까지 통일만세 울려갈
그날로 겨레를 떠밀어주며
8월은 뜨겁게 달아오른다
삼천리가 용암처럼 끓어오른다



득은 미국이 보고 매는 납초선이 맞는다

지금 박근혜역적폐당은 《싸드》 배치는 《북의 핵, 미싸일 위협으로부터 민중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느니 뛰니 하고 떠들어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한갓 기만에 불과한것이며 남조선의 《싸드》 배치는 철두철미 보수집권세력의 친미사대 굴종정책이 빚어낸것이다.

미국은 남조선에 《싸드》를 배치함으로써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 구축 완성을 돌파구를 열어놓으려고 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대초부터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세웠으며 여기서 관건적인 것이 바로 《미국-일본-남조선》 전선이다.

미국본토에 설치한 요격체계와 남조선에 들어오는 《싸드》 그리고 일본에 배치되어 있는 《AN/TPY-02》이 동시에 레이다가 현동되면 필연적으로 3자간의 정보공유가 이루어져 3각군사동맹의 기초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으며 조선반도 주변국들의 군사적 움직임을 손금보듯이 들여다볼 수 있다. 남조선의 《싸드》 배치는 바로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 완성의 《첫걸음》인 것이다.

또한 미국은 남조선에 《싸드》를 배치함으로써 남조선과 주변국들 사이에 쇄기를 박고 남조선을 자기의 손아귀에 더욱 단단히 틀어잡을 치밀한 계산까지 하였다. 남조선의 《싸드》 배치에는 선행집권자들이 끌을 보지 못한 미싸일방위체계 구축을 완성하였다는 평가를 받으려는 미국대통령 오바마의 정치적 탄도 깔려있다. 하기에 미국은 《싸드》 배치 결정을 《한미년례안보협의회》가 열리는 올해 10월에 발표하자

는 남조선당국의 요구를 무살하고 얼마전 전격적으로 공개하였다. 이를 두고 외신들은 《미국은 〈한국〉을 희생양으로 하여 일석다조의 거대한 외교적 효과를 얻었다.》, 《미국의 〈싸드〉 배치 결정은 대중국포위화의 완성을 의미한다.》, 《득은 미국이 보고 매는 〈한국〉이 맞는 어처구니 없는 광경》 등으로 대서특필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싸드》의 남조선 배치 결정으로 막다른 풀목으로 내몰리우고 있다.

주변국들은 남조선의 《싸드》 배치 결정에 강경립장을 견지하면서 《핵미싸일 공격 목표로 될 수 있다.》, 《호상판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제재를 가하겠다.》 등의 위협도수를 높이고 있다.

남조선 각계에서도 《스스로 자멸을 재촉하는 어리석은 망동》, 《제 민족 팔아먹고 저 하나 살아보겠다는 무서운 것》, 《미국이 〈아〉 하면 확성기로 되받아 웨치는 특등매국노》라는 목소리가 련일 울려나오고 《싸드》 반대투쟁이 각지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

역적폐당이 주변국들과의 마찰과 집권위기를 각오하면서까지 《싸드》 배치 결정을 공포한 것은 미국에 아무굴종하며 상전파의 군사적 결탁을 강화하여 동족을 한사코 해치려는 흥심의 발로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다.

《싸드》를 끌어들여 동북아시아 지역에 미싸일방위체계를 수립하려는 미국의 야망을 충족시켜주고 그 대가로 반공화국 압살공조를 더한층 강화하려는것이 역적폐당의 속심인

것이다.

미국이 원하는것이라면 남조선인민들의 생명과 존엄도, 삶의 터전도 서슴없이 섬겨바치고 그 대가로 반공화국 압살공조를 구걸하는것은 혁대 남조선통치배들의 노예적본성이이다. 북침 전쟁열에 들떠있던 리승만역도 《통수권이양에 관한 협정》(1950년) 등의 각종 예속적이고 불평등한 조약체결을 통해 남조선군에 대한 통수권을 미국에 완전히 섬겨바쳤다.

남조선에서 미군은 각종 특혜와 특전을 향유하면서 폭행과 강탈, 살인과 강간 등 온갖 범죄를 일삼고 있으며 그리고도 아무런 처벌도 당하지 않는 신성불가침, 치외법권적존재로 되고 있다. 특히 1966년에 제정한 미국남조선 《행정협정》은 그것을 법적으로 담보해주고 있다. 수십 만명의 남조선청장년들이 미국의 대포밥으로 웨일남전쟁에 파병된 것만 보아도 박정희역도의 친미굴종기질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남조선의 혁대보수집권세력들은 미국의 리익을 위해서라면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송두리채 팔아먹었다. 《미국의 리익을 지키는 길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고 로끌적으로 떠들어댄것이 바로 보수집권세력이다.

친미굴종, 친미사대는 박근혜가 집권하면서 더더욱 로끌화되고 있다. 박근혜는 미국의 도움으로 《대통령》 명거지를 쓰기 바쁘게 상전의 환심을 사보려고

최근 남조선에서는 《싸드》 배치로 인한 사상최대의 혼란이 일어났다.

《싸드》 배치가 결정된 성주의 주민들은 물론 남조선전역이 죽가마ಡ듯 하고 주변국들도 성난 파도마냥 비난이 그치지 않고 있다.

거세찬 《싸드》 배치반대열기를 피해 《휴가》 랍시고 뒤풀방에 움츠려 있다 머리를 내민 청와대 안방주인은 《저도

가슴이 시릴만큼 아프게 부모를 잃었다. 유일한 소명은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것》이

라며 여론을 뉙잦히기에 여념이 없다. 물에 빠진 자지푸래기라도 잡는 격으로 비명횡사한 애비에를 거들어대는 현 집권자

의 추태는 그야말로 가관이다.

그는 《싸드》 배치의 부당성에 대해 밝히면서 대화가 지역 평화를 위한 가장 적절한 선택이라고 주장하였다.

서울, 인천, 대구 등 각 지역의 많은 국민들이 성주군 주민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

한편 남조선야당인 국민의

당 관계자는 8월 1일 성주군

청에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

지고 《싸드》 배치반대 세력을

《외부세력》으로 몰아대는 당

국을 비난하였다.

그는 《싸드》 배치가 남조선

에 리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

주군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도 박근혜 《정권》은 《불순세력》, 《외부세력》을 운운하

고 있다고 성토하였다.

당국이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세

월이 흘러도 절대로 《싸드》

배치에 찬성할 수 없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전 청와대 비서관 김충환은 《싸드》 배치를 두고 당국이 《북의 미싸일과 핵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본사기자

《〈한국〉이 누리고 있는 자유와 경제발전은 〈한〉 미동맹의 결파》라느니, 《21세기형 포괄적 전략동맹》이니 뭐니 하면서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더욱 무겁게 제창하였다. 수백 명의 어린이들이 바다물속에 수장된 대참사로 하여 초상집이 된 남조선에 반공화국 압살공조를 위해 미국상전을 끌어들이고 모자라 새파란색의 화사한 웃을 멀쳐입고 아양을 떨다가 세인의 지탄을 받은 《미국의 창녀》 박근혜였다.

특히 내외의 강력한 항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넘겨받게 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무기한 연장함으로써 박근혜역적폐당의 친미사대 매국노로서의 정체는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상전이 요구하고 바라는것이라면 그것이 참혹한 대가를 산생시키더라도 무조건 해야만 하는것이 바로 식민지 노복의 가련한 처지인 것이다.

현실은 미국의 충실한 주구이며 노부인 박근혜가 권력의 자리에 앉아있는 한 남조선에 《싸드》를 배치하기로 한 결정이 달라질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 친미주구는 어쩔수 없구나.》 리로운게 하나도 없고 엄청난 화만 초래할 《싸드》 배치를 미국을 위해 서슴없이 결정한 남조선집권세력의 쓸개빠진 망동을 지켜보며 세인은 지금 이렇게 생각할것이다.

본사기자 리철민

『싸드』 배치반대 투쟁의 함성이 드높은 남조선땅에서 황당무계한 잡소리가 빠여져 나오고 있다.

『우리의 〈싸드〉 배치 결정은 북의 중대되는 〈핵미싸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 조치이다.』

얼마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통일부 부당국자가 한 말이다.

명색이 통일부 장관이란 자의 발언치고는 너무도 유치하고 철면피한 말장난이 아닐수 없다.

조선반도의 핵문제가 미국이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강점하고 핵무기를 풀어들임으로써 산생된 문제임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핵전쟁위협에 대처하여 핵보유를 국책으로 선포하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자위적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여 핵보유국의 전렬에 당당히 들어선 공화국이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안전에 책임적인 역할을 할것이라고 내외에 엄숙히 선언한 것 또한 한 자자가 인정하는 엄연한 사실이다.

원래 자위란 자기 힘으로 자신을 보호한다는 말이다. 하다면 동족을 해치고 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미국의 《싸드》를 배치하는것이 진정 남조선인민들의 생명과 그 무슨 《안전》을 위한 《자위적 조치》란 말인가.

최근 남조선언론들은 《싸드》가 안전하다느니 뛰니 하

고 떠드는 보수폐당의 주장에 대해 《싸드》의 배치로 인한 전자기파와 소음의 피해를 입고 있는 팸주민들의 실상을 공개하면서 《싸드》의 위험성을 보도하고 있다.

또한 내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폐권 전략에 복종되는 《싸드》의 남조선배치가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최대로 긴장시키고 새로운 군비경쟁을 초래하는 신랑전의 화근으로 되고 있다고 일치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런 《싸드》가 틀고 앉게 되면 온 남조선땅이 주변국들의 치렬한 핵대결장으로 화하고 남조선인민들은 국적불명의 학탄이 언제 어디서 날아들지 모르는 항시적인 불안과 공포속에 가슴조이며 살아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다.

대대로 농사지으며 살았던 삶의 보금자리를 하루아침에 빼앗기게 된 성주군 주민들과 남조선 각계층이 자신의 운명을 시시각각 위협할 《싸드》 배치를 사생결단하고 반대해나서는것은 바로 그때문이다.

남조선인민들의 삶의 여전, 온 거제의 운명이 회생되는데는 아랑곳없이 그 무슨 《자위적 조치》를 운운하는 쓸개빠진 친미사대 《정권》에 대한 민중의 저주와 분노는 하늘에 닿고 있다.

인민들의 버팀을 받고 있는 현 《정권》 앞에는 비참한 자멸의 길만이 놓여있을뿐이다.

본사기자 김철진

재 미국대사 글레이스틴이였다는 사실을 비롯하여 객관적으로 나타난 수많은 현상자료들은 미국에 의해 길들여지고 미국의 조종밀에 권력을 차지했던 《유신》 독재자의 죽음이 상전인 미국의 주구교체국의 일단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유신》 독재자의 비참한 말로는 손가락 하나로 주구를 살릴수도 있고 죽일수도 있는 상전과 하수인간의 행운한 현실이 가져온 필연적 결과였다.

하려는것이 미국의 진짜목적이며 《싸드》의 유일한 사명이다.

《싸드》 배치가 확정된 순간부터 남조선내부는 물론 주변국들까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남조선 각계에서는 《〈싸드〉는 미국행 미싸일방어용일 뿐이다.》, 《전쟁발발시 〈싸드〉는 미국이 운영한다.》, 《피물같은 〈싸드〉, 대체 이게 누구한테 왜 필요한거지?!》라고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외인들도 《〈싸드〉는 원래 주 〈한〉 미군용이다. 미국은 주변나라들을 겨우 〈싸드〉의 비용을 〈한국〉에 부담하게 하려는것이다. 〈싸드〉는 조선반도에 맞는 무기가 아니다.》라고 비평하고 있다.

* * *

누구에 의한 죽음인가, 누구를 위한 《싸드》 배치인가.

두 물음의 시간적차이는 수십년이 되지만 대답은 하나같이 미국이다.

앞에서는 미국에 의해 비명횡사한 애비의 죽음을 가슴아파하고 돌아앉아서는 미국을 위한 《싸드》 배치를 강행하려드는 행위야말로 친미주구의 어쩔수 없는 가련한 추태가 아닐수 없다.

본사기자 황진옥

가련한 주태

러운 존재로 되면 그것들을 없애버리는것이 미국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그래서 아래저래 리용가치가 상실되고 리익보다 손실을 더 주는 《유신》 독재자는 상전의 칼도마에 오른 물고기인 세가 되었던것이다.

《유신》 독재자를 암살한 김재규의 지도인물이 남조선주

누구를 위한 《싸드》 배치인가

남조선의 현 집권자는 안팎에서 올려나오는 《싸드》 배치비난여론에 《나라와 국민을 보호》 한다는 요설을 내흔들고 있다.

《싸드》가 남조선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무기란 말인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이것은 남조선이 아니라 오직 미국을 위한것이라는것이다.

《싸드》가 남조선에 배치되기는 하지만 남조선군은 나사못 하나 다칠 편이 없다는 사실, 《싸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서울 등 중요지역이 그 방공범위에서 벗어나는 반면에 미군핵심시설은 대부분 방공범위에 들어간다는 사실, 인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싸드》가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 배치되는 사실 등을 《싸드》가 남조선을 위한것이 아니라 미국을 위한것임을 말해 주고있다.

《북핵 위협》을 구실로 남조선에 배치하기로 한 《싸드》는 동북아시아지역에서의 폐권적지위를 유지강화하며 나아가서 세계를 제패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실현의 일환이다. 《싸드》를 남조선에 배치하여 주변나라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타격 및 방어 수단들을 내탐하고 이에 기초하여 저들의 선제공격능력을 강화



요즘 세상에 대고 목청껏 질려대는 소리가 사람들의 귀청을 어지럽게 자극하고 있다. 다른 아닌 박근혜 보수당이 떠드는 『북위협』론이 그것이다.

입만 열면 『북위협』, 『북미싸일위협』에 대해 쥐쳐댄다. 어제는 공화국이 당장 망할 것처럼 『북봉피』에 대해 그토록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더니 이제와서는 『북

—통하지 않는 허구— 《봉피》론이 《위협》론으로

위협》에 대해 목이 쉬도록 떠들어댄다. 『봉피』된다면 북이 『위협』으로 된다? 이 얼마나 앞뒤가 맞지 않는 허황하고 모순에 찬 궤변인가.

거덜이 난 《북봉피》론

수십년 전 도이췰란드통일,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들의 봉파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게 공화국도 결국 『봉피』 할것이라 환각을 일으켰다. 더 우기 1994년 민족의 대국상, 런이은 자연재해와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들의 봉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보며 적대세력들은 북이 끝 『봉피』 할것이라 『3.3봉파』 설을 내돌렸다. 당시 남조선의 『문민』 독재자는 『갑자기 통일이 되여 북주민들이 밀려내려올수 있다.』는 황당한 궤변까지 늘어놓았다.

『북봉피』론은 리명박 『정부』 기간 『급변사태』론으로 그 허울을 바꾸었다. 2010년 7월 당시 남조선의 통일부 장관이었던 현인택은 미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를 만난 자리에서 북이 2015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북의 『봉피』를 포함한 『급변사태』를 대비해야 한다고 했으며 외교안보석이었던 천영우 역시 『북은 이미 경제적으로 봉파하고 있고 2~3년내에 정치적으로 봉파할것』이라고 예상했다.

워킬릭스가 폭로한 미국의 외교문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0년 사이 리명박 『정부』 고위관료들은 『궁지에 몰린 북이 점점 취약해지고 있어 강경하게 나가면 북의 봉파

혹하고 돈이면 만사가 다 된다는 황금만능의 저력을 하고도 추악한 속물적 근성이 진하게 배여있는 것으로 하여 나오자마자 만 사람의 조종을 면 할수 없었다. 박근혜는 『통일대박』을 떠들면서 『북이 어떻게 될것인지는 누구도 모른다.』, 『모든 가능성을 넘두에 두고 대비하는것』이라고 쥐쳤다.

『통일준비위원회』, 박근혜는 제가 직접 그 위원장이 되여 체제대결에 광분하였다. 내부적으로는 『통일현장』이요, 『통일헌법』이요 하는 것을 조작하는데 달라붙고 외부적으로는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저들 주도의 『통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구걸질하는데 여념이 없었다. 박근혜의 수하줄개들 속에서 『2015년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하라.』는 망발 까지 거리낌없이 튀어나왔고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이란자는 『흡수통일팀』이 조직되어 실지 가동하고 있다느니 뭐니 하고 발언하였다.

이 모든 것들은 북에 대한 무지, 체제대결의식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공화국이 가장 공고하고 안정된 사회라는 것은 자타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최근 몇년간에만도 공화국은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와 불쇄속에서도 조금도 혼들리지 않고 정치와 경제, 군사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안정되고 비약적인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적대세력의 류례 없이 『가혹한 제재』와 위협 속에서도 령도자를 받드는 것은 확인된 지역일 뿐 군사비밀을 구실로 확인되지 못한 지역들까지 합하면 그 피해상은 엄청난 것이라고 한다. 유해물질로 인한 농경지들의 오염은 농민들에게 있어서 사형선고나 다른 없다.

일찌기 땅과 함께 일생을 살면서 거기에 명줄을 걸고 생계를 유지해온 농민들에게 있어서 농업은 생명과도 같다. 하다면 농민들의 생명선을 끊어놓는 장본인은 누구인가.

다름 아닌 미군과 그에 군종하는 남조선보수당국이다. 온 남조선땅이 군사기지로 황폐화되고 해마다 진행되는 전쟁연습으로 농민들이 농번기를 놓치

는 군민의 마음은 더욱 뜨거워지고 불변의 것으로 되었으며 그 속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는 특기할 사변도 이루어졌다.

자강력의 기치밑에 공화국의 경제도 나날이 활성화되고 인민생활항상의 동음이 어디서나 높이 울리고 있다. 세인의 관심속에 착공을 시작한 려명거리는 몇달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응장한 자래를 드러내여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

공화국이 수소탄을 비롯한 자위의 핵억제력을 보유하고 각종 운반수단들도 갖추어 적대세력의 그 어면 침공도 단매에 짓부시고 침략의 본거지를 바다에 잠글수 있게 된 것도 세인이 보는 현실이다.

한마디로 『봉피』가 아니라 더욱 무섭게 솟구치고 최후승리에로 확신성 있게 나아가는 공화국이다. 그런데도 북이 『봉피』 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흡수통일』 기도실험을 위한 대결책동에 만매달렸으니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가.

박근혜의 『북봉피』 소동은 세상사람들에게 크릴로브의 우화 『박새』를 련상시킨다.

어느날 박새는 새들이 모인에서 몹시 우쭐하여 이제 당장 날아가 훈적도 없이 바다를 불태워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순간에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였다. 사면팔방에서 사람들은 물론 새들과 짐승들도 바다가 얼마나 뜨겁게 끓어번지는가를 보려고 모두들 달려왔다.

어제날 힘이 약해 렬강

그러나 아무리 기다리고 기다려도 바다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모두들 사연을 알아보려고 박새를 찾았으나 어디에서도 볼수가 없었다. 너무도 창피하여 머나먼 곳으로 달행복을 수십년간 계속 터나버렸던 것이다. 박새의 부르짖음 같은 박근혜는 거덜이 나고 누구도 믿지 않는 허황한 것으로 끝이 막연히 봉피하기만 기다리는 사이비 종교만도 못한 행태를 정권을 훤 세력이 보여주고 있다. 고비고았겠는가.

오죽하면 얼마전 남조선

의 한 야당인사가 『걸핏하면 근거도 불확실한 『북봉피』론을 떠드는 어리석은 보수언론과 우익정치인들을 보고있으면 어쩌면 저렇게 한물간 류행복을 수십년간 계속 터나버렸던 것이다. 북

이 막연히 봉피하기만 기다리는 사이비 종교만도 못한 행태를 정권을 훤 세력이 보여주고 있다. 고비고았겠는가.

허황한 『북위협』론

한때는 공화국이 『봉피』 된다고 하더니 최근에는 『위협』으로 된다고 법석 고아대고 있는 박근혜보수당이다.

박근혜가 범죄적인 『싸드』 배치를 합리화하고 있는 구실도 이른바 『북의 핵위협, 미싸일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

한마디로 『봉피』가 아니라 더욱 무섭게 솟구치고 최후승리에로 확신성 있게 나아가는 공화국이다. 그런데도 북이 『봉피』 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흡수통일』 기도실험을 위한 대결책동에 만매달렸으니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인가.

공화국의 핵은 핵전쟁 그 자체를 막기 위한 자위의 핵이며 철두철미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그런데도 그 무슨 『위협』에 대해 야단법석 하며 떠들어대는 것은 모든 것을 친미 굴종과 동족대결의 구도로만 바라보고 있는 박근혜보수당의 병적인 사고를 드러낸 것이다. 하나의 사물현상도 어떤 시각에서 보는가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진다.

같은 조선사람이라는 동족의 시각에서 보면 공화국의 핵은 민족의 유품가는 재보요, 평화번영의 위력한 담보로 보일 것이다. 공화국은 세계가 지켜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

들의 각축전장으로 화했던, 나중에는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되었던 조선반도이다. 그런 조선이, 그런 조선민족이 오늘날 세계적인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방의 핵강국으로, 강대한 민족으로 되었다.

조선민족의 폐와 열, 존엄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민족사적 사변으로 찬양하고 기뻐할 대경사이다. 그러나 침략적인 외세의 시각, 동족대결의 시각에서 본다면 공화국의 핵이 마치 저들의 심장을 겨눈 비수처럼 보일 것이다. 미국이 없으면 못살 것처럼 생각하고 눈을 뜨나 꿈속에서나 『체제통일』의 망상에서 아직도 허우적 거리는 남조선당국이고 보면 공화국의 핵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는가.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화국의 핵은 미국의 핵위협, 침략위협을 막아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온 겨레의 운명을 지켜주는 평화의 역할 보겠다.

남조선호전파들이 대비한다는 간판밑에 『실후로 더욱 뜨거워가는 온 겨례의 통일』 넘원과 의지에 찬물을 비롯한 수많은 무장장비들을 동원하여 해상실탄사격훈련을 벌려놓고 수천발의 포탄과 미싸일까지 쏘아대며 국도의 긴장상태를 조성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남조선군부 우두머리들이 또다시 서해열점지역들에 나타나 공화국에 대한 도발적 압박들을 늘어놓으며 전쟁열을 고취하고 전쟁장비증강책동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오기 마련이고 무모한 불장난은 엄청난 화재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서해열점수역을 비롯하여 남조선도처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군사적 도발망동들이 조선반도의 정세를 어떤 위험천만한 지경으로 몰아가고 얼마나 참혹한 재난을 불러오게 될 것인가는 구태여 설명 할 필요조차 없다.

조선반도는 일시적인 정전상태에 있는 지역이며 한점의 불씨로 하여 전면전쟁의 불길이 타번질 수 있다.

이미 한차례의 참혹한 전쟁을 겪은 우리 겨레는 이땅에서 다시 전쟁이 터지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하기에 공화국은 남조선당국이 미국에 추종하여 동족

에서도 전쟁을 바라지 않으며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룰데 대하여, 이를 위해 현방제통일을 하며 남조선당국이 하루빨리 동족대결정책을 버리고 통일의 진정한 동반자가 될 데 대한 자기의 성의 있는 립장을 명백히 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협』을 떠드는 것이야말로 파렴치한 현실기만이고 외세의 힘을 빌어 동족을 끌까지 압살해보려는 캐릭터는 기도를 어떻게 하나 실현해보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박근혜보수당은 그 누구의 『위협』에 대해 요란스레 떠들지만 사실상 남조선인민들의 생명안전을 위협으로 떠밀고 있는 것은 그들 집권세력 자신이다.

미국의 대아시아지배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무기체계인 『싸드』를 남조선땅에 끌어들이기로 함으로써 조선반도의 긴장을 최대로 격화시키고 남조선을 언제 날아올지 모를 국적불명의 핵무기들의 공격목표로 하루아침에 내맡기는 쓸개빠진 짓을 하고 있는 남조선의 친미보수 『정권』이다.

여기에는 남조선을 위한 침략적인 외세의 시각, 동족대결의 시각에서 본다면 공화국의 핵이 마치 저들의 심장을 겨눈 비수처럼 보일 것이다. 미국이 없으면 못살 것처럼 생각하고 눈을 뜨나 꿈속에서나 『체제통일』의 망상에서 아직도 허우적 거리는 남조선당국이고 보면 공화국의 핵이 얼마나 뻔뻔스러운가.

하기에 지금 남조선에서는 각계층이 매일같이 떨쳐나서 『싸드』 배치 철회, 박근혜퇴진을 웨치며 반 『정부』 투쟁을 세차게 벌리고 있다. 박근혜당이 아무리 『북위협』론을 떠들어대도 밝은 이 세상에서 그것은 통하지 않는다.

박근혜는 이제라도 동에 텔지 않는 『북위협』론을 걸어치우고 외세와 작당하여 동족을 해치려는 범죄적인 소동을 중지해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김춘경

제땅에서 농사도 마음대로 못 짓는다

『새 생명이 돌아날 대지우로 묵직한 전차의 무한궤도가 지나간다.』

남조선집지에 실린 글의 한토막이다.

씨앗이 뿌려져야 할 땅이 무한궤도에 짓눌린 모습, 이것은 곧 남조선농촌의 현실이고 농민들이 처한 비참한 처지 그 대로이다.

해마다 진행되는 침략적인 전쟁연습으로 말미암아 남조선농민들의 한숨소리는 더욱 높아가고 있다.

분면연선지역이나 군사연습장주변지역들에서는 전쟁연습으로 하여 농번기를 놓치고 땅을 묵이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남조선의 환경

농사는 적기를 놓치면 폐농인데 전쟁연습소동이 농번기를 가리지 않고 있어 그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는 막심하여 한탄속에 정든 고장을 떠나고 있다.

농민들을 피롭히는 것은 전쟁연습소동뿐이 아니다. 최근 남조선군의 한개 사단이 60년동안 주둔하다가 떠난 경상남도 창원지역이 각종 기름과 증기 속으로 하여 심히 오염된 사실이 드러났다.

군사기지들로 인한 환경문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며 거기에서도 농경지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해 남조선의 환경

부가 조사발표한데 의하면 74개 미군군사기지지역과 주변지역에서 오염 확인된 곳은 46개였다고 한다.

이것은 확인된 지역일 뿐 군사비밀을 구실로 확인되지 못한 지역들까지 합하면 그 피해상은 엄청난 것이라고 한다. 유해물질로 인한 농경지들의 오염은 농민들에게 있어서 사형선고나 다른 없다.

일찌기 땅과 함께 일생을 살면서 거기에 명줄을 걸고 생계를 유지해온 농민들에게 있어서 농업은 생명과도 같다. 하다면 농민들의 생명선을 끊어놓는 장본인은 누구인가.

다름 아닌 미군과 그에 군종하는 남조선보수당국이다. 온 남조선땅이 군사기지로 황폐화되고 해마다 진행되는 전쟁연습으로 농민들이 농번기를 놓친다.

대비한다는 간판밑에 『실후로 더욱 뜨거워가는 온 겨례의 통일』 넘원과 의지에 찬물을 비롯한 수많은 무장장비들을 동원하여 해상실탄사격훈련을 벌려놓고 수천발의 포탄과 미싸일까지 쏘아대며 국도의 긴장상태를 조성하였다.

그것도 모자라 남조선군부 우두머리들이 또다시 서해열점지역들에 나타나 공화국에 대한 도발적 압박들을 늘어놓으며 전쟁열을 고취하고 전쟁장비증강책동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구름이 자주 끼면 비가 오기 마련이고 무모한 불장난은 엄청난 화재를 초래하기 마련이다. 서해열점수역을 비롯하여 남조선도처에서 끊임없이 벌어지는 군사적 도발망동들이 조선반도의 정세를 어떤 위험천만한 지경으로 몰아가고 얼마나 참혹한 재난을 불러오게 될 것인가는 구태여 설명 할 필요조차 없다.

조선반도는 일시적인 정전상태에 있는 지역이며 한점의 불씨로 하여 전면전쟁의 불길이 타번질 수 있다. 이미 한차례의 참혹한 전쟁을 겪은 우리 겨레는 이땅에서 다시 전쟁이 터지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하기에 공화국은 남조선당국이 불신과 대결은 해소될 수 없으며 언제 가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기대할 수 없다.

공화국은 이미 내외호전 세력들에게 단호한 경고를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모한 군사적 도발과 북침불난소동에 계속 매달린다면 기필코 자멸의 길은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본사기자 서희



한미 당국 사드 배치 강행 규탄 기자회견

경제파탄 사드배치 철회

정향련

범죄의 진상은 가리울 수 없다

얼마전 남조선의 야당들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백남기농민에 대한 경찰 폭력사건 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고위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통한 검찰개혁, 《전경련》의 《어버이련합》에 대한 지원의 흑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등 8개 사항을 합의하고 이것을 수용할 것을 《새누리당》에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집권세력들은 《싸드》 배치로 정국이 혼란된 틈을利用하여 지난 시기 저들이 저지른 온갖 반인민적죄악을 가리우기 위해 이어져온 구실밀에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

그런데 남조선보수집권세력들은 저들의 반인민적죄악을 가리우는데만 급급하면서 《세월》호사건의 진상규명을 사사건건 가로막아나섰다.

인민들의 거세찬 항거에 못이겨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를 내오고 진상규명을 한다고는 하였지만 그것은 허울뿐이고 눈가림의 민심기만구이였다. 《세월》호진상규

지금 남조선집권세력은 《싸드》 배치를 반대하는 야당의원들의 활동에 대해 《신사대주의》 이니 뭐니 하며 헐뜯어내고 있다. 파연 무엇이 사대주의이고 누가 진짜 사대주의자인지.

아래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자료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박근혜는 《대통령》 병거지를 쓰자마자 미국에 오바마에게 전화를 걸어 《임기 5년 중 대부분을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느니, 《앞으로 긴밀히 협력하여 〈한〉 미국 동맹관계를 한층 강화하겠다.》느니 뭐니 하고 아양을 떨어 상전을 흡족케 하였다. 그리고 인차 미국상전을 찾아가서는 오바마의 이름인 《바

라크》가 《축복》이라는 뜻인데 자기의 이름에 있는 《혜》도 같은 뜻이여서 이름부터 공통점이 있다고 역스럽게 주절거려 내외의 조소를 자아냈다. 2014년 4월에는 《세월》호참사로 온 남조선땅이 눈물바다에 잠겼을 때 오바마를 끌어들여 화사한 웃음을 떨쳐입고 봄바람에 취한 창녀마냥 꼬리를 쳤다. 2015년 3월 남조선주재 미국대사 리퍼트가 응당한 징벌을 받았을 때에는 마치 제 할애비가 불상사를 당하기라도 한듯 애단법석하면서 외국행 각종에 전화를 걸고 비행장에 내리자마자 병원에 찾아가 상전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죄를 사죄하며 머리를 조아려댔다. 박근혜의 뒤를 이어 온갖 어중이며 중이들이 꽂을 전달한다. 위문품을 보낸다. 치료비를 부담한다고 분주왕을 피우다 못해 미국기발을 들고 거리를 돌아 치며 그 무슨 《완폐기원기도회》와 음악회를 여는가 하면 지어 거리한 복판에 듯자리를 깔고 끊어 앉아 미국대사에게 용

식단식투쟁에 돌입하였으며 백남기농민이 입원한 병원을 찾은 야당의원들이 피해자가족들을 만나 《국회》에서 철저한 해명을 약속하는 등 보수집권세력들에 대한 압력의 도수를 높이고 있다.

남조선 각계와 야당들을 비롯한 정계가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집권세력들의 반인민적죄악을 단죄규탄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

알려진 것처럼 2014년 4월 남조선에서는 온 세계를 충격속에 몰아넣은 《세월》호침몰사건이 벌어졌다. 꽃망울도 퍼우지 못한 수백 명의 어린아이들이 수장된 《세월》호사건은 특대형반인륜죄악으로서 그 진상을 밝히고 그에 따른 주모자처별로 있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남조선보수집권세력들은 저들의 반인민적죄악을 가리우는데만 급급하면서 《세월》호사건의 진상규명을 사사건건 가로막아나섰다.

인민들의 거세찬 항거에 못이겨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를 내오고 진상규명을 한다고는 하였지만 그것은 허울뿐이고 눈가림의 민심기만구이였다. 《세월》호진상규

명에서 가장 큰 증거물인 《세월》호의 인양을 자금이 없고 날씨가 나쁘다는 당치 않은 구실밀에 아직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한 단적 실례이다.

이런 속에 1년 6개월의 여유밖에 없었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도 기한이 다 되어 지난 6월 30일 진상해명을 위한 제대로 된 활동 한번도 하지 못하고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에 분노한 남조선의 각계와 야당들을 비롯한 정계가 《세월》호를 인양하고 그 이후 진상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연장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집권세력들은 그것을 연장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당치 않은 구실밀에 그것을 거부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문제다.

백남기사건 《청문회》, 《전경련》의 《어버이련합》 지원 해명을 위한 진상규명 《청문회》 등은 경찰, 청와대와 정보원 등 남조선 《정부》의 주요기관들과 대기업체들이 관련된 것으로서 20대 《국회》 초반부터 줄기차게 야당들이 주장한 요구사

본사기자 서명수



동족대결을 부추기는 『정신교육』

지금 남조선집권세력은 군을 상대로 그 무슨 《정신교육》이라는 해괴한 광대극까지 벌려놓으면서 동족 대결에 광분하고 있어 만사람의 비난과 조소를 자아내고 있다.

얼마전 남조선집권자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들을 모아놓고 사기와 기만으로 얼룩진 반공화국모략선 전물을 대한 상영놀음을 벌려놓았으며 이 모략선전물을 남조선군사병들의 《정신교육시간》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미 전부터 남조선군의 일과표에 《정신교육시간》이라는 것을 별도로 정해놓고 사병들에게 공화국을 비난하는 편집물시청과 《반공교육》을 체계적으로 벌려온 역적파당이다.

이미 북을 함께 살 아나갈 동족이 아니라 《주적》으로 선포해나선 보수당국은 남조선내에서의 통일진보 세력도 《적》으로 규정한 《표준교안》이라는 것까지 정해놓았다.

이미 전부터 남조선군마위가 그 무슨 《정신교육》이나 받는다고 하여 통방의 핵대국으로 우뚝 일떠선 공화국에 헛발질이나 제대로 하겠는가.

지금 남조선군은 공화국의 강위력한 정치 군사적 위력을 앞에 질겁하여 국도의 불안과 공포로 허덕이고 있다.

학들에서도 교재로 리용하고 있는 학교도서들이 《북의 체제를 미화하여 반미성향이 강하다.》느니, 《당국의 국방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들이 적혀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군부대내에서의 판매와 열람을 완전히 중지시켰다.

남조선보수파당이 벌려놓는 《정신교육》이란 군사병들속에 동족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과 대결의식을 주입시키켜 그들을 북침전쟁의 돌격대로 만들려는 데 있다.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없다.

군통수권마저 상전에게 고스란히 넘겨바쳐 아무런 권한도 능력도 없는 미제의 전쟁하수인, 전쟁대포밥에 지나지 않는 오합지졸이다.

이미 북을 함께 살 아나갈 동족이 아니라 《주적》으로 선포해나선 보수당국은 남조선내에서의 통일진보 세력도 《적》으로 규정한 《표준교안》이라는 것까지 정해놓았다.

지금 남조선군은 공화국의 강위력한 정치 군사적 위력을 앞에 질겁하여 국도의 불안과 공포로 허덕이고 있다.

남조선군부가 줄여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한해에 평균 100여명의 사병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으며 《자살우려자》가 되어 심리교육을 받고 있는 사병들은 넌간 3000명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 가하면 염전사상과 전쟁공포증이 만연된 군부에서는 매일과 같이 살인적인 폭행과 총격사건이 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술에 만취한 사병들이 서로 죽임내기를 하고 군수물자를 훔치는 것과 같은 현상들이 보편화되고 있다.

이를 두고 얼마전 한 야당의원은 《부끄럽다. 군대라고 말할 수 없는 오합지졸이다.》라고 개탄하였으며 인터넷에도 《저런 군대를 가지고 어떻게 북파싸우겠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군복 입으면 군대냐, 술병들었으니 주정군이지.》, 《진짜 전쟁일 어나면 누구에게 첫발을 날리겠는지 뻔하다.》라는 애유와 조소의 글들이 런속 오르고 있다.

썩을대로 썩은 오합지졸의 무리를 동족대결에 부추기며 《정신교육》이라는 것까지 벌려놓고 있는 박근혜당이 정말 가소롭기 그지없다.

정신도덕적으로 부페타락하고 망해가는 허수아비 군대를 불잡고 아무리 발버둥질을 해도 기울어진 저들의 운명을 더는 건질 길이 없다는 것을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본사기자 류현철



이란 핵 합의를 둘러싸고 갈등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핵문제를 구실로 실시하여오던 대이란경제제재를 해제한다는 것을 발표한 때로부터 일정한 시일이 흘렀다.

알려진 것처럼 지난해 7월 이란이 핵개발을 중지하는 대신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핵 합의를 이루었다. 이를 두고 당시 서방세계는 《국제분쟁해소의 본보기》라느니 뭐니 하면서 요란스레 광고하였다.

그러나 많은 분석가들은 지난 시기 리비아와 이라크의 실례와 결부해보면서 이란과 미국사이의 핵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겠는가 하고 의문을 표시하였다.

결코 공연한 위구가 아니였다.

미국이 이란과의 핵 합의 이후 취한 태도를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이란은 국방력강화를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자체로 개발한 탄도미사일들을 시험발사하였다. 주권국가로서 이것은 너무도 정당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란이 시험

발사한 탄도미사일들이 모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것들이며 이것은 곧 유엔 결의에 대한 엄중한 위반이라고 하면서 불에 텐 황소처럼 날뛰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자기 나라가 어떠한 핵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대하여 이 미 립증하였으며 또 자국의 미사일 가운데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은 없다고 강력히 반박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막무내로 이 문제를 유엔에 상정시켜놓고 지난해 12월 유엔전문가위원회로 하여금 이란의 탄도미사일발사 시험이 유엔 결의에 위반된다는 《결의》라는 것을 만들 들어내게 하였다.

그후 미국은 새로운 제재를 준비한다는 것을 공개하면서 이란을 위협하는데 끝에 미사일개발활동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개별적인 이란인들과 11개의 기업체를 제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새로운 제재를 발동시켰다.

이란에 대해 이미 실시하였던 제재를 해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제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표리부동한 행동을 보면서 국제정세분석가들은 혹시나 다른 주제들도 론의 할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미국은 《약속을 정확히 지키지 않고 있다.》고 규탄하였다. 이에 앞서 이란의 최고지도자는 《(핵 합의가 시행된) 지난 6개월 동안 이란 국민의 삶에 기친 효과는 도대체 무엇인가.》고 반문하면서 《미국이 지역문제를 협상하고 요청하는데 핵 합의의 경험은 그것이 치명적 특약이 될 것임을證明한다.》고 주장하였다.

지금 미국은 이란의 원유수출은 일정하게 보장하는 것으로 마치도 저들이 핵 합의를 지킨다고 표방하고 있지만 그것은 눈감고 아옹하는 격이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이 이어지리한 구실밀에 금융부분에 대한 제재와 암바의 도수를 늦추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미국은 이란의 원유수출은 일정하게 보장하는 것으로 마치도 저들이 핵 합의를 지킨다고 표방하고 있지만 그것은 눈감고 아옹하는 격이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이 이어지리한 구실밀에 금융부분에 대한 제재와 암바의 도수를 늦추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으로 하여 얼마 전 이란대통령은 TV연설을 통해 이란과 미국사이의 《핵 합의는 일종의 시험이었다. 만약 미국이 믿음과 정확성을 갖고 핵 합의를 시행해 현재 이란이 겪고 있는 각종 장애물과 지연조치들을 완화한다면 량국은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리익에 부합하는 다른 주제들도 론의 할수

앞에서는 감람나무가지 를 흔들고 뒤에서는 날창을 들이대는 미국의 행동은 저들의 눈에 거슬리는 나라들의 무장을 해제하고 그 나라들을 손쉽게 틀어쥐겠다는 그들의 본심은 어제도 오늘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본사기자 김용철



본사기자 박철남